

## Class III 턱변형증의 상·하악 턱교정수술

서울중앙병원치과

김재승

동양인에서 가장 많은 ClassIII의 Dentofacial Deformity를 치료함에 있어서 위·아래턱에 대한 턱교정수술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가 드물지 않다. 우리가 흔히 하악전돌증이라고 생각하는 ClassIII 턱변형증을 자세히 보면, 1) 순수한 하악전돌증은 약 30%, 2) 순수한 상악후퇴증이 약 10% 그리고 3) 상악후퇴증과 하악전돌증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약 60%이다. 그러므로 턱교정수술을 위한 진단에서 뇌기저부에 대한 상·하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상악후퇴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상악에 대한 턱교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얼굴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두개골의 장축이 짧은 동양인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예를 들면 코가 작고 납작한 경우에 상악골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면 코의 모양이 더욱 악화되므로 가능하면 하악골에 대한 턱교정수술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lassIII 턱변형증에 있어서 상·하악 턱교정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악후퇴증과 하악전돌증이 복합되어 있는 턱변형
2. 상악후퇴증만이 있으나 교정량이 약 7~8mm 이상인 턱변형
3. 하악전돌증만이 있으나 교정량이 약 12~15mm 이상인 턱변형
4. 상·하악의 치궁의 폭이 안맞는 턱변형
5. 얼굴의 길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야 하는 턱변형



그림 1. 상악후퇴증에 대해서 Le Fort I Osteotomy, 하악전돌증에 대하여 Sagittal Split Osteotomy를 시행하여

6. Occlusal Plane을 변경시켜야 하는 턱변형

7. 상악에 비대칭적 변형이 있는 턱변형

ClassIII 턱변형증에 있어서 가능한한 하악만의 턱교정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코가 작고 납작한 경우
2. 윗입술이 짧고 얇은 경우
3. 두개골의 장축이 짧은 턱변형
4. 상악후퇴증이 경미한 턱변형
5. 전신적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ClassIII 턱변형증의 상·하악턱교정수술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Occlusal Plane의 안정성
2. 상·하악 치궁폭의 조화
3. 상악의 상·하(Up and down), 회전(Rotation), 기울기(tilt)과 좌우대칭(Ro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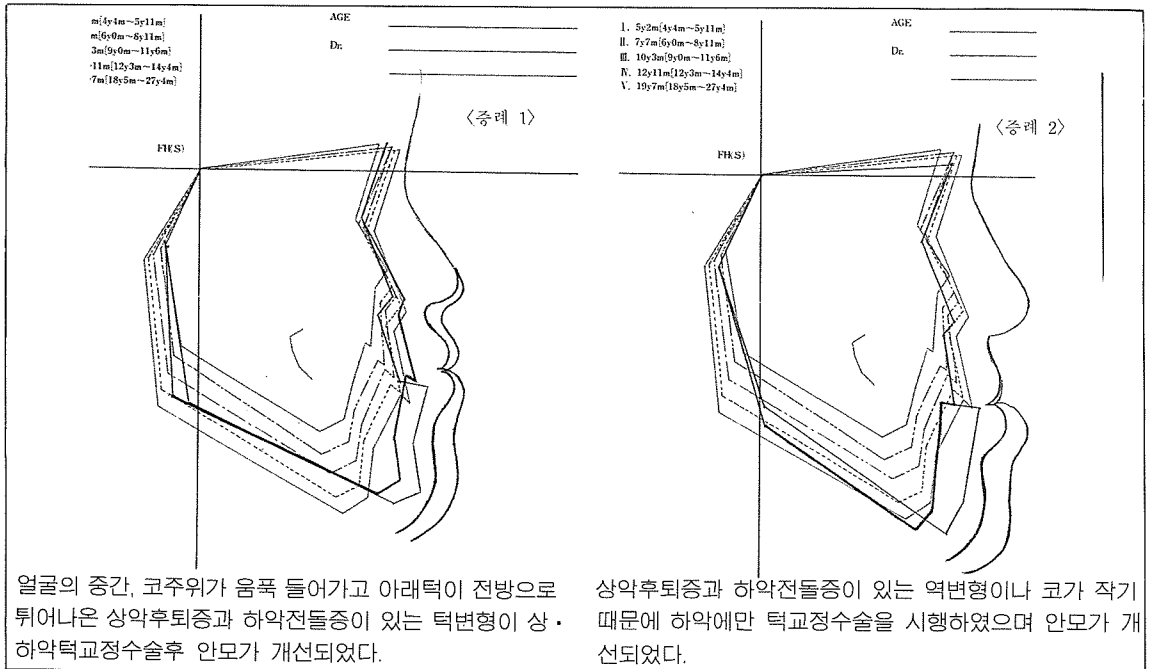


그림 2. 중례 1과 중례 2의 Cephalographic study 이다. (청색 — : 수술전, 적색 — : 수술후)